아프간 난민 수용 반대

【민원요지】

○ 민 원 인 : 양*모(게시번호 290)

○ 제　　목 : 아프간 난민 수용을 막아주세요

○ 민원내용 : 아프간 난민 수용 반대 및 지역주민 미동의에 따른 거짓 언론보도 중지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아프간 조력자 수용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지난 우한 교민들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던 주민 여러분께 다시 아프간 조력자들이 우리 지역 소재의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력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이번 입소 결정이 긴박하게 이루어져 미처 많은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소상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인재개발원이 재차 수용시설로 선정되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대다수의 국가시설들이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력자들의 입소로 인해 주민 여러분께서 치안 문제와 수용 이후의 정착 문제, 반복해서 우리 관내의 인재개발원 시설이 국가차원의 수용시설로 사용되는 점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 우선, 치안문제와 관련하여 이번에 들어온 아프간 조력자들은 한국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정부 협조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특히, 입소자 중 미성년자가 231명, 만6세 이하도 1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지 근무시 이번 사태로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철저한 신원조사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 시설 내 안전관리는 법무부에서 전담으로 추진합니다. 법무부 직원과 민간 방역인력 등 총 59명으로 생활시설운영팀을 구성하여 행정, 의료, 방역 등 생활시설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내·외부로 경찰 1개 기동대와 법무부 안전요원 등의 병력이 24시간 경비·순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가 끝난 뒤에는 진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감시초소 설치 및 경비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최대한의 인력을 배치하여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용기간 내에는 수용자는 입·출입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으로, 인재개발원 수용기간 동안 사회적응교육(문화, 법질서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6~8주간 수용기간 이후 아프간 조력자 거취 문제는 법무부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인재개발원 시설에 국가적 차원의 수용에 대해 전국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라 많은 국가 시설들이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되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며, 다시금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뉴스나 인터넷으로 먼저 소식을 접하셨을 주민 여러분께, 더불어 본인의 의견과 일부 다른 미디어의 내용을 접하셨을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법무부 등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천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043-539-31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